

“광주체육 새로운 중흥기 열겠다”

광주시체육회장 후보 2인 주요 공약

오는 15일 치러질 광주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자신들의 강점을 내세워 유권자를 공략하고 있다.

박찬모(62·기호1) 후보는 ‘스포츠 인프라 확충’을, 전갑수(62·기호2) 후보는 ‘소통·화합으로 광주체육 중흥기 열겠다’며 표심 공략에 나섰다.

박 후보는 “광주체육은 도덕성, 참신성, 소통 능력을 두루 갖춘 훌륭한 리더를 발굴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면서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이 균형 있게 상생하는 광주체육, 체육인의 권익 신장과 광주체육의 위상제고를 통해 위기에 처한 광주체육을 올바르게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선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뒤 전남대에서 공학석사·박사학위를 받았고 광주시육상연맹 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주)우영기술건축사사무소 회장을 맡고 있다.

박 후보는 공약으로 스포츠 인프라 확충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현재 광주체육은 인프라가 빈약하다면서 세계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광주종합 실내체육관(스포츠센터) 건립과 광주전, 영산강천 수변공간에 각종 체육시설을 설치하겠다”며 “인프라 구축은 지방비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국

박찬모, 스포츠 인프라 확충·은퇴선수 지도자 전환 지원 등 추진
전갑수, 소통과 화합 통한 지역체육 발전·차별없는 체육행정 강조

비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체육단체 전무이사 활동비 연차별 증대, 은퇴선수의 체육지도자 전환 지원 등 복지 정책도 제시했다. 학교체육 꿈나무 육성을 위해 체육인재 장학기금 확보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시민 1인 1종목 확대, 전문체육·생활체육을 아우른 광주체육 대회 대추전 개최 등 생활체육 공약도 소개했다. 체육행정 선진화 부문에서는 예측가능한 행정을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체육행정, 보조금 집행만하는 소극적 행정 탈피 등 정책을 내세웠다.

배구 선수 출신인 전갑수 후보는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광주체육 중흥기를 열어 체육인에게 자부심을 주고 시민 건강과 행복을 쟁기는 체육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광주시배구협회 회장, 광주시체육회 이사, 한국 실업 배구연맹 부회장, 대한 경기협회 부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대한 장애인배구협회 회장을 맡았다. 고액기부자클럽인 광주 아너소사이어티 106번째 회원이다.

전 후보는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광주체육 풍토를 조성하겠다”며 “광주체육의 진정한 통합을 이루고 화합과 단결을 이뤄내 안정적으로 조직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배구선수 출신으로 일관되게 배구활성화는 물론 지역체육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전 후보는 “우리 지역 선수들의 진로 확대를 위해 자비로 남자배구 실업팀을 창단해 12년 동안 운영했으며, 호남대 여자배구팀 창단에도 물심양면 지원했다”며 “여자프로 배구 페퍼저축은행이 광주를 연고지로 정하는 데 앞장서 결실을 이뤄냈고 광주체고 출신 선수 2명을 페퍼 배구단에 입단토록 한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전 후보는 “공정하고, 차별 없는 체육 행정을 펼쳐 한 종목단체, 선수 한 사람도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당선 즉시 가칭 ‘업무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체육회 인원을 직능, 전공, 성별, 경륜별로 적정 배분하고 체육회 업무도 직원 능력에 따라 배치하는 등 혁신을 단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체육회장 후보 공약



박 찬 모
(기호 1번)

- ◇체육 시설 인프라 확충
세계대회 개최 광주종합 실내체육관 건립
광주전·영산강천 수변공간 체육 시설 설치
월드컵경기장·영주체육관 주변 시설 집약
- ◇전문체육 선수 지도자 처우 개선
전무이사 활동비 연차적 증대
종목별 운영보조비 연차적 증액
은퇴선수의 생활체육지도자 전환 지원
- ◇학교 체육 꿈나무 육성
체육인재 장학기금 확보
운동부 창단 학교 장기적 지원 방안 마련
꿈나무 우수선수 신인 발굴대회 개최 지원
- ◇생활체육 시민과 함께
시민 1인 1종목 확대 전개
광주 체육대회 대추전 체육대회 개최
시민 참여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 ◇체육행정의 선진화
체육인 일자리 창출과 복지향상
안정적 예산 확보
객관적이고 투명한 체육행정



전갑수
(기호 2번)

- ◇도약하는 전문체육
각 종목단체 전무이사 처우 개선
실업팀 확대 일자리 창출 및 연계육성 강화
우수선수 영입을 위한 지원금 증액
- ◇건강한 생활체육
공공·학교체육 시설 개방 확대·순회 사용
종목별 시장기 및 회장기 대회 지원금 확대
스포츠시설 건립 확대 추진
- ◇함께하는 구체육
구체육회 체육지도자 무기계약직 단계적 전환
구 종목단체별 구대항 리그전 개최
시·구 협력 유소년·어르신 스포츠 활성화
- ◇꿈꾸는 학교체육
학교·경기단체 연계 ‘광주형스포츠클럽’ 확대
선수 육성 관련 안전 보험 민·형사적 소송 지원
학교 운동부 창단 지원 및 동·하계 훈련비 인상
- ◇혁신하는 광주체육
재정자립을 위한 체육진흥조례 개정 추진
광주체육장학재단 설립
종목 사무실 환경 개선·행정 보조 인력 지원

우승에 선물까지...학강초 야구부 ‘따뜻한 겨울’

지난달 2개 대회 연달아 우승
SSG 최주환 모교 후배 사랑
올해도 스파이크 30컬레 선물
“내년에도 좋은 성과 낼 것”

광주 학강초 야구부가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학강초는 지난 11월 연달아 우승을 차지하면서 기분 좋게 시즌을 마무리했다.

10·11월 진행된 광주시 베이스볼 리그 야구대회에서 8승 2패의 전적으로 우승팀이 된 학강초는 지난달 29일 끝난 제6회 대구광역시장기 전국초등학교 야구대회에서도 5연승 행진을 달리면서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다.

얼마 전에는 학강초 선수들을 웃게 한 특별한 선물도 도착했다. SSG 랜더스에서 활약하고 있는 내야수 최주환이 모교 후배들을 위해 스파이크를 선물한 것이다.

앞서 후배들을 위해 방한 장갑, 배트 등의 선물을 보냈던 최주환이 이번 겨울에도 잊지 않고 따뜻한 마음을 전한 것이다.

학강초 최태영 감독은 “선수들이 하나로 뭉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우승을 이룰 수 있었다. 선수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학교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다”며 “내년 소년 체전에 맞춰서 준비 잘해서 좋은 성과 내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또 “(최주환이) 겨울에 후배를 열심히 하라고 신발 30컬레를 보내줬다. 어렸을 때부터 모범적인 선수였고, 올바른 행동과 선행을 많이 하는 선수였다. 프로에 가서도 물심양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선물을 받고 선수들이 정말 좋아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도 했다”며 “최주환 선수는 물론 KIA 양현종, 롯데 김원중 선수 등 프로에서 활약하는 선수들 TV로 보면 뿌듯하고, 맛있고, 어렸을 때 모습도 생각한다. 학강초 출신 선수들이 좋은 활약해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내년 시즌 학강초의 주장으로 활약하게 된 포수



선배님에게 하트 화답

SSG 최주환에게 신발 선물을 받은 학강초 야구부 선수들이 손으로 하트를 그리고 있다.

오중현은 “최주환 선배와 같은 선수가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오중현은 “감독·코치님들이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 우리 선수들이 모두 열심히 하고 잘한다. 선수들 하나로 모여서 내년 전국대회 쓸어 담고 싶다”며 “타격에서 좋은 모습 보이면서 최주환 선배 같은 야구 선수가 되고 싶다. 기본적인 부분 반복해서 열심히 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최주환은 선물을 통해 오히려 더 많은 기쁨을 얻었다고 이야기했다.

최주환은 “후배들이 열심히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어떤 선물을 할까 생각했는데 신발 하나씩 해주면 좋아할 것 같았다. 감독님을 통해서 후배들의 감사 인사 영상이 왔는데 뿌듯했다. 와이프한테도 보여주면서 기분 좋다고 이야기했다(웃음)”며 “미래의 프로야구 영재들인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나도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이번 겨울 잘 준비해서 그라운드에서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여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최주환은 “올 시즌 성적이 좋지 못해서 마음이 무겁다. 개인 트레이닝을 하면서 운동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달리기를 배우고 있다. 내가 폭발적인 스피드가 있는 선수는 아니지만 안주하지 않고 스피드를 늘리고 싶고, 지난해 햄스트링을 다치면서 좋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부분도 있다”며 “한국 육상을 대표하는 김국영 선수와도 최근 인연이 돼서 뛰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예전에 태권도를 하면서 순발력을 키운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순발력 운동을 하고 있다. 새로운 도전을 통해 더 좋은 모습 보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남 코치진 구성 완료 “내년 시즌 재도약”

임관식·한동훈·조민혁 합류

2023시즌 재도약을 노리는 전남드래곤즈가 코치진 구성을 완료했다.

이장관 감독과 함께 할 새얼굴로 임관식 수석코치, 한동훈 코치, 조민혁 골키퍼 코치가 전남에 합류했다.

임관식 수석코치는 전남 소속으로 172경기에 나와 5득점 4도움을 기록한 ‘전남 레전드’로 2015시즌 전남에서 프로 지도자 활동을 시작했다. 2016시즌에는 전남의 K리그 스피릿A 입성에 기여하기도 했다. 임관식 수석코치는 앞선 경험을 바탕으로 이장관 감독을 보좌하면서 전남의 재도약에 역할을 할 전망이다.

한동훈 코치는 2021시즌 FA컵 우승에 함께한 ‘검증된 지도자’이고 조민혁 골키퍼 코치는 부천 FC, 천안시청, 대한축구협회 전임지도자로 활동했다. 이들은 기존 최희영 피지컬 코치와 김영욱 코치와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또 전남은 선수단 부상 방지와 최상의 컨디션 유



전남드래곤즈가 재도약을 위해 조민혁 골키퍼 코치(왼쪽부터), 임관식 수석코치, 한동훈 코치를 새로 영입했다.

<전남드래곤즈 제공>

지를 위해 신규 의무트레이너(AT)로 베테랑 권혁준 의무팀장, 김승규·최민기 트레이너를 영입했다. 권혁준 의무팀장은 부산, 인천, 중국리그와 베트남리그에서 활동한 베테랑이다.

전남은 12월 선수단 상경례를 갖고 2023시즌 준비에 돌입했으며, 1월 중순 동계훈련에 나설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내년 전국체전 개·폐회식 총감독 박명성 위촉

전남도가 12일 목표를 중심으로 2023년 개최 예정인 제104회 전국체전·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개·폐회식 총감독에 박명성(사진) 예술감독을 위촉했다.

박 총감독은 해남 출신으로 지난 1982년 연극배우로 문화예술계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40여년간 무대감독, 연출가, 공연 프로듀서로서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았다. 1999년부터 혁신적인 사고와 새로운 시도로 초대형 뮤지컬을 기획, 제작하며 한국 뮤지컬 중흥기를 이끈 뮤지컬계의 ‘미다스의 손’으로 통한다.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개·폐회식 총감독, 2017년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개막식 총감독 등을 통해 쌓은 탁월한 행사 기획력과 연출 노하우로 온 국민 스포츠 축제의 시작과 끝을 성공적으로 장식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지사는 “전국체전의 성패는 개·폐회식이 좌우한다”며 “박명성 총감독이 탁월한 무대 연출 역량으로 세계적 무대를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전국체전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중요한 이벤트인 개·폐회식을 감동의 무대로 연출해낼 역량 있는 인사를 총감독으로 선임하고자 관련 업계의 명망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총감독추천위원회를 운영했다.

총감독 위촉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전국장애인체전이 끝나는 11월까지 11개월이다.

/호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LOTTE CINEMA | 총장로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올빼미, 압구정, 프레이 포 더 데블
- 2관 올빼미, 원피스 필름 레드
- 3관 압구정, 데시벨
- 4관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람이 사라진다 해도, 극장판 보로로와 친구들: 바이러스를 없애줘!
- 5관 올빼미, 극장판 보로로와 친구들: 바이러스를 없애줘!
- 6관 압구정
- 9관 올빼미, 프레이 포 더 데블
- 7관 씨네커피 올빼미, 원피스 필름 레드,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 동감
- 8관 씨네커피 탄생, 스페이스 키드: 우주에서 살아 남기, 크리스마스 캐럴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제132회 정기연주회
송년음악회, 蓋世之才(개세지재)
일시 : 2022. 12. 15.(목) 19:30
장소 : 빛고을시민회관
문의 : 062-415-5403